



'25.11.21(금)

## 지역별 테러 동향

## 아·태

- 파키스탄, 전날 인도 폭탄테러 이후 수도 법원에서 폭탄테러
  - 11.12 언론은 인도에서 차량 폭탄테러 이후 하루 뒤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지방법원 일대에서 폭탄 테러로 최소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, 배후 세력으로 인도의 지원을 받은 TTP를 지목하였다고 보도
    - ※ 인도-파키스탄은 △종교적(힌두교-이슬람교) △영토적(카슈미르 영유권)의 문제로 지속적으로 분쟁 중에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갈등 고조 우려
- 日, 드론 비행금지 구역을 현재 300m에서 1km로 확대 검토
  - 11.13 언론은 일본 경찰이 드론 성능 향상과 테러 대비를 위해 총리 관저·공항 등 중요 시설의 무인기 비행금지 구역을 300m에서 1km로 확대하고, 옐로 존에서도 즉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도
    - ※ 비행금지 구역은 핵심 지역인 '레드 존'과 이를 둘러싸는 형태의 '옐로 존'으로 구성
- 인도, 13명 사망 뉴델리 테러... “반국가 세력 소행” 규정
  - 11.13 언론은 인도 뉴델리에서 차량 폭발로 최소 13명의 민간인이 숨진 사건을 인도 총리가 주재한 연방 내각에서 “반국가 세력에 의해 자행된 극악무도한 테러 사건으로 공식 규정”했다며 파키스탄 연계 세력의 테러로서 보도

## 미주

- 美, 유럽 反파시즘 단체 4곳 외국테러단체 지정 예고
  - 11.14 언론은 미국 정부가 독일, 그리스, 이탈리아의 4개 단체<sup>\*</sup>를 ‘폭력적인 안티파 단체’라고 비난하며, 오는 20일부터 국제테러리스트로 지정하고 외국 테러조직(FTO) 명단에 올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
    - \* 안티파 오스트, 프롤레타리아 정의, 비공식 아나키스 연맹·국제혁명전선

## ○ 에콰도르, '미군 주둔 허용' 개헌 관련 국민들의 반대로 좌초

- 11.17 언론은 에콰도르 정부가 정치인·검사·경찰관 등을 상대로 한 테러가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와 더불어 치안 강화 목적의 개헌안을 추진하였으나, 유권자의 3분의 2가량이 반대하는 투표 결과를 확인後 철회하였다고 보도
  - ※ 에콰도르의 경우 '08년 외국 군사기지 설치 및 외국군 주둔 금지를 골자로 한 개헌을 통해 '09년 미군이 철수하였으며 최근 재임 중인 노보아 대통령이 재유치 필요성을 역설

## 유럽

## ○ 독일 극우, 메르켈 청부살해 한다며 코인 모금

- 11.12 언론은 「메르켈」前 독일 총리 등의 청부 살해를 모의한 극우파 운동가가 적발됐다며 검찰은 용의자를 청부살인 대가로 가상화폐 모금과 정치인, 고위공직자 등 20여 명 살해 등 폭력을 선동한 혐의로 조사중이다 보도
  - ※ 동인은 '사형 판결문', 폭발물 제조법 등을 다크넷에 올리고 청부살인 대가로 가상화폐를 모금 및 정치인, 고위공직자 등 20여 명 살해 의뢰 등 폭력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부언

## ○ 佛, 130명 사망한 파리 테러 10주기 추모식 거행

- 11.14 언론은 지난 13일 프랑스 정부가 '15년 IS가 일으킨 파리 테러 10주기 추모식을 진행하였으며, 「마크롱 대통령」이 추도간 테러와의 싸움은 쉬지 않고 계속 진행될 것임을 강조하였다고 보도
  - ※ 파리 테러는 2015년 11월 13일 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 대원들의 자살폭탄과 총기 난사 등 연쇄 공격으로 130명이 사망하고, 400여 명이 다친 사건

## 아프리카

## ○ 우간다, 무슬림 시위대 기독교 상점 습격 및 방화...5명 사망

- 11.16 언론은 우간다에서 돼지고기 판매에 대해 이를 '종교적 모독'으로 주장한 일부 무슬림 과격 시위대가 기독교 상점과 가옥을 습격 및 방화하여 최소 5명이 사망하고 교회 건물 및 기독교인 상점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
  - ※ 同 지역은 '24년 기준 인구 약 93만 명 중 무슬림이 75%, 기독교인이 24%로, 헌법과 법률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, 일부 지역은 기독교 박해 지속

## 역사속 테러사건

### 인도, 뭄바이 연쇄 테러

- '08. 11. 26 ~ 29 인도 뭄바이 전역에서 파키스탄에 기반을 둔 이슬람 무장단체 라슈카레타이바(LeT) 소속 조직원 10명이 연쇄 총기 · 폭탄 테러를 감행(사망 166명 · 부상자 300명)

❶ 트라이던트 오베로이 호텔에서 투숙객

대상 총격테러(11. 26, 21:20경)

❷ 레오플드 카페 총격테러(21:30경)

❸ 차트라파티 시바지역 총격테러(21:30경)

❹ 알블리스 병원 총격테러(11. 27, 01:30경)

❺ 타지마할 호텔 총격테러(09:43경)

❻ 국가 보안군 특공대원에 의한 테러범 제압완료(11. 29, 08:30경)

- 한편, 국내에서도 라슈카레타이바(LeT) 조직원인 파키스탄인이 마트 직원으로 근무하다 2025년에 검거

\* '23.9 同人은 파키스탄 주재 한국 영사관에서 사업차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사증 발급신청서로 비자를 발급, '23.12 국내로 불법 입국

- 同 인원은 테러단체 캠프에서 기관총 · 박격포 등 중화기 사용법 교육과 침투훈련 등을 거쳐 LeT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 중

⇒ UN지정 테러단체 조직원이 국내에서 검거된 만큼 잠재적 위협 요소에 대응 위한 관련 기관의 공조 강화 등 테러예방 및 대응책 점검 필요



< 뭄바이 테러공격 장소 >

## 테러 상식

### < 라슈카레 타이 바(Lashkar-e-Taiba) >

- (활동지역) 아프가니스탄, 인도 등
- (목적) 남아시아 지역에 이슬람 국가를 건설, 카슈미르 지역 무슬림의 해방
- (특징) 파키스탄에 기반을 둔 이슬람주의 무장단체
- (주요테러) 2000년 인도, 델리 자살폭탄 테러(3명 사망)  
2001년 인도, 의회 건물 공격 \* 인도-파키스탄 관계 악화 계기